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시민·관광객에 무료 가이드투어·음악회	피렌체
행정·교육	3	3월부터 모든 공공장소 실내에서 금연 의무화	상하이
	5	다문화사회 통합 포석 중학교 학군 구획 바꾼다	파리
	7	시·대학·주택신탁 협력 도시개발 전문가 양성	버밍엄
	8	학교 매점 음식료 등급·구성·재료 건강 기준치 적용	뉴사우스웨일즈
환경·안전	10	‘테러·폭력사태 대응’ 안전대책 마련	베를린
도시계획·주택	12	정보·광고 시설물 면적 줄이고 디지털화	파리
뉴스인사이드	17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시민·관광객에 무료 가이드투어·음악회

3~11월 월 1회 …궁전 등 ‘특별한 장소’ 개방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도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장소를 월 1회 개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 가이드투어를 제공하고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
- 배경
 -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에는 역사적·예술적 의미가 있지만, 보존·복원·행정 등의 이유로 시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한 궁전이나 공공건물이 많음
 - 피렌체의 숨겨진 명소와 그 역사를 알리고자 2012년 처음으로 실험적 이벤트를 개최했고,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6년째 개최 중
 - 표어는 “주말 음악회(Weekend in Musica) - 이색적인 장소의 분위기(L'aria dei Luoghi insoliti)”
- 주요 내용
 - 일정: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토요일에 개최
 -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무료 가이드투어를 진행하고, 11시부터 음악회 개최
 - 투어와 공연은 무료이지만, 홈페이지 예약은 필수
 - 장소: 피렌체의 새로운 역사적 발견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올해는 다음과 같음
 - 스트로치 사크라티 궁전(Palazzo Strozzi Sacratì): 토스카나주지사의 공관으로 주의 모든 주요 업무가 처리되는 상징적인 궁전
 - 로돌포 시비에로(Rodolfo Siviero)의 생가: 나치가 강탈했던 이탈리아의 유물과 예술품을 되돌려 받는 데 기여한 유명 역사학자의 생가
 - 피렌체 공공 병원(Ospedale Santa Maria Nuova):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병원이자 피렌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소
 - 판치아티키 궁전(Palazzo Panciatichi): 토스카나주의 대표 궁전

- 음악회는 피에솔레 음악학교(Scuola di Musica di Fiesole)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
 - 프로 음악가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음악회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의의

– 성과

- 평소에 방문할 수 없는 역사적 공간을 무료로 관람하고, 음악회까지 즐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

<http://www.regione.toscana.it/-/weekend-in-musica-l-aria-dei-luoghi-insoli-1>

<http://www.regione.toscana.it/-/i-luoghi-insoliti-dei-weekend-in-musica>

http://www.regione.toscana.it/zh_TW/web/toscana-notizie/dettaglio-notizia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행재정·교육

3월부터 모든 공공장소 실내에서 금연 의무화

중국 상하이市 / 행재정·교육

- 중국 상하이市는 2017년 3월 1일부터 역대 최고로 엄격한 금연정책이라고 평가되는 신(新)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上海市公共场所控制吸烟条例)를 시행해, 원칙상 본인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
- 배경
 - 증가하는 흡연 피해
 - 중국의 흡연인구는 3억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
 -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피해도 증가
 - 상하이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를 시행
 -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행 이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
 - 이에 따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는 2016년 11월 11일 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이전보다 강력해진 금연정책
 - 과거에는 호텔, 레스토랑, 대합실, 오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흡연 허용
 - 이번 조례로 모든 공공장소 실내에서 금연이 의무화
 - 과거 조례에서 허용했던 공항, 철도역, 부두 등의 대합실에 설치되었던 흡연실도 모두 철거될 예정
 - 실내장소뿐 아니라 이하 6종류의 실외장소에서도 흡연 금지
 - ①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활동센터, 교육연수 기관 등 미성년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
 - ② 모자보건센터, 아동병원

- ③ 체육시설의 관중석 및 경기구역, 공연장의 관중석과 공연구역
 - ④ 개방 문화 보호구역
 - ⑤ 버스 등 공공교통시설
 - ⑥ 법률이 정하는 기타장소
- 위반 시 50~200만원(8,300~33,000원)의 벌금 부과
 - 흡연을 제재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2천~3만 원(33만~530만 원)의 벌금 부과
 - 새로운 금연조례 시행에 앞서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로 시민들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준비 기간을 마련

<http://www.jiemian.com/article/1141729.html>

<http://news.gxnews.com.cn/staticpages/20170301/newgx58b69b1d-15985971.shtml>

<http://sh.bendibao.com/news/20161111/172056.shtm>

<http://www.yangtse.com/cjnews/20170304/yr38618.html>

<http://news.gxnews.com.cn/staticpages/20170301/newgx58b69b1d-15985971.shtml>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다문화사회 통합 포석 중학교 학군 구획 바꾼다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2017년 1월 시의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학교 학군 구획변경을 결의
- 배경
 - 인종·계층 간 분리 문제의 심화
 - 한국보다 일찍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인종·계층 간 분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
 - 인종·계층에 따라 사는 지역과 진학하는 학교가 분리되고, 교육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 교육자본 격차는 프랑스의 계층 간 장벽을 공고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 중학교 학군 구획변경으로 교육자본 격차의 완화 추구
 - 프랑스의 인종·계층 간 분리는 주로 중학교 때부터 심화되며, 어느 중학교에 진학하느냐가 학생에게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됨
 - 프랑스는 2004년 8월 13일 발의한 ‘분권화 법안’에 따라 행정적 구 단위와 상관없이 학군의 구획설정이 가능
 - 2017년 1월 파리 시의회는 5개 구의 중학교 학군 구획을 사회통합에 이로운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학군 구획변경으로 부유층 자녀 또는 백인들만 진학하는 중학교의 발생을 막고 교육자본의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
- 목표
 - 국가와 공동체는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인식과 목표에 따른 결정
 - 각 학군의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교육기관이 학생 수용 능력을 포함한 교육 역량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에서 사회통합이 가장 약하고 계층 분리가 심한 파리에서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프랑스 전체의 사회통합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구획변경
 -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최소한으로 시행
 - 구획변경은 해당 학군의 인구 구성 변화, 교육기관의 수용 능력, 새로운 학교의 설립 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
 - 2017년에는 우선 5개 구의 학군만 변경하기로 결정
- 2017년 9월(프랑스의 신학기 시작 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작업 진행
 - 공립학교 교사들의 소속 학교 변경
 - 기관별 보조금 지급액 변경
 - 학부모에게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최대한 일찍 결정해 통보

<http://www.paris.fr/actualites/la-sectorisation-des-colleges-au-service-de-la-mixite-sociale-4435>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시·대학·주택신탁 협력 도시개발 전문가 양성

영국 버밍엄시 / 행정정·교육

- 영국 버밍엄시는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심개발 프로젝트 (Big City Plan)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지역 대학교와 주택신탁과 협력하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빌딩 버밍엄 장학금’(BBS: Building Birmingham Scholarship) 프로그램
 - 건설 및 부동산개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유능한 16~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예정
 - 멘토링과 코칭, 직업 실무 연수, 인턴십, 견습 체험, 대학 학비 지원
 - 장학금은 주택개발 사업자들이 버밍엄시 주택신탁에 내는 개발부담금으로 마련
 - 2017년 최대 25명에게 1인당 연 9,500파운드(1,330만 원)를 지원할 예정
 - 관련 기업들도 BBS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
 - 버밍엄 지역의 젊은 계층에게 기술적 유산(skill legacy)을 물려줄 것으로 기대
- 지원 자격
 - 학사 이상의 고등 교육을 버밍엄시에서 시작하려는 16~24세 사이의 청년
 - 영국 이민법에 따른 영국 거주자로 3년 이상 버밍엄에 거주한 사람, 영국령 시민, 유럽연합 시민
 - 지원자 가족구성원의 연 수입이 9,500파운드(4,900만 원) 이하
 - 기존 학위 취득자, 다른 유사 성격의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교육 과정
 - 버밍엄 시티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2017년 9월부터 ‘부동산개발 및 도시계획’(Property Development & Planning) 교육 과정을 시작할 예정
 - 주요 커리큘럼은 관련 기술과 정책, 실무 교육 등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139/support_for_business/447/building_birmingham_scholarship

<http://www.bcu.ac.uk/courses/property-development-and-planning-bsc-hons-mplan-2017-18>

<http://birminghamnewsroom.com/building-birmingham-scholarship-student-engineers-announced/>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학교 매점 음식료 등급·구성·재료 건강 기준치 적용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행정정·교육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학생들의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학교 매점 전략’(Healthy School Canteens Strategy, 이하 ‘매점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매점 메뉴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
- 배경
 - 심각해지는 학생 비만
 - 5~16세 뉴사우스웨일즈주 학생의 22%는 과체중 혹은 비만이며, 35%는 매일 과당 음료 및 당과류 등의 비건강식을 섭취 (2015년 기준)
 - 주정부의 목표는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을 2025년까지 5% 감소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의 필요성 대두
 - 주정부는 이미 2005년부터 ‘신호등 시스템’(Traffic Light System)이라는 매점 정책을 운영
 - 식품을 ‘녹색’(권장 식품: 과일, 야채, 요거트 등), ‘황색’(주의 식품: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 과일주스, 육가공품 등), ‘적색’(비권장 식품: 초콜릿, 탄산음료 등)의 세 가지로 분류
 - 학교 매점은 ‘녹색’ 권장 식품 위주로 운영하도록 지침 제공
 - 매점 운영자들이 지침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수정하고 지침을 더 간명하게 만들어 매점 운영자들에게 전달
- 개요
 - ‘매점 전략’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등급·구성·재료들이 ‘호주 식생활 지침’(Australian Dietary Guidelines)에 부합할 것을 요구
 - 주정부의 ‘건강한 어린이 정책’(Healthy Children Initiative Programs)의 세부 전략 중 하나
- 주요 내용
 - ‘매점 전략’의 핵심은 ‘음식 및 음료 기준’(Food and Drink Benchmark)
 - 매점 음식을 크게 ‘일상(everyday) 음식’과 ‘간헐적(occasional) 음식’의 두 가지로 구분

- 일상 음식이란 매일 섭취해도 되는 다양한 건강식을 의미
(곡물, 야채, 과일, 저지방 고기류 및 생선류, 낙농 음식 등)
- 간헐적 음식이란 포화지방 비율이 높고, 설탕과 소금 함유량이 많아 영양
학적 가치가 적고 건강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음식을 의미
(과일주스, 캔 음료, 버거, 스낵류 등)
- 매점에서 판매하는 일상 음식과 간헐적 음식의 비율을 3:1로 규정
- 간헐적 음식에 대해 건강지수 별점(Health Star Rating)을 적용
 - 간헐적 음식은 건강지수 별점이 3.5 이상이어야 판매 가능
- 설탕 첨가 음료(Sugary Drinks: 콜라, 레모네이드,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가당 주스 등)는 주정부 관할 모든 학교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금지
- 매점 전시 규제
 - 간헐적 음식과 음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광고를 할 수 없음

- 추진 전략

- 3년간의 이행 기간
 - 이 기간에 주정부 관할 모든 학교는 지원을 받아 기존의 매점 판매 관행
을 개선 가능
 - 공립학교는 의무대상으로 2019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행해
야 하며, 사립학교에도 이 전략을 채택하도록 강하게 권장

<https://www.nsw.gov.au/your-government/the-premier/media-releases-from-the-premier/healthier-menus-for-school-canteens/>

https://www.healthykids.nsw.gov.au/downloads/file/campaignsprogram/TheNSWHealthySchoolCanteenStrategyFoodandDrinkBenchmark_ACCESSIBLECOLOUR.pdf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환경·안전

‘테러·폭력사태 대응’ 안전대책 마련

독일 베를린市 / 환경·안전

- 독일 베를린市는 테러 대응 능력과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 2017년 1월 9일 베를린시 안전 대책을 결의
- － 배경
 - 직접적인 배경은 2016년 12월 난민용의자가 저지른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사건
 - 테러와 폭력사태에 대한 기존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고 관련 기관들의 대응 능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러를 분석해, 민주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 마련
- － 주요 내용
 - 안전 관련 기관의 테러 대응 설비 강화
 - 테러 대응용 경찰 차량 배치
 - 구급차, 소방대, 경찰의 각종 장비 개선
 - 이동 경찰 초소 설치
 - 난민 및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강화
 -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강화
 - 난민들에게 독일 사회의 가치와 법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숙지
 -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에 대한 일관된 강제추방 조치
 - 출국지원센터를 통해 입국규제 및 출국명령 대상자의 자발적 출국을 촉진
 - 어린 난민들의 조기 사회통합 지원
 - SToP 프로그램(학교 밖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모 없이 온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사회통합을 지원

- 통역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문화·교육·스포츠 기관의 지원을 확대
- 베를린 가족센터에서 어린이가 있는 난민가족의 조속한 정착 지원
- 각 구의 청소년 교육 상담소와 가족 상담소에서 문제적 난민가족 상담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강화
 - 공공건물과 공공공간 설계 시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관점을 반영
 -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등의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급진과격주의 포기와 예방을 위한 방안
 - 관련 행정부서 간의 협업
 - 학제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급진과격주의 사태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지도
 - 폭력방지 위원회의 상담소에서 초기 단계의 급진과격주의자 및 가족과 친구를 상담하고, 급진과격주의 포기 도우미 제공
 - 교도소 수감자와 교도관을 대상으로 급진과격주의 예방 및 인식 교육

- 위험 단체 금지
 - 테러를 계획하고 위협하는 단체 결성 금지
 - 다문화 간의 평화로운 공생을 위협하는 세력에는 반테러 단체법을 적용하고, 다문화 간의 공존을 적극 돕는 단체에는 지원 확대
 - 테러 위협 세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하여 체류 자유 제한

- 대형 이벤트와 공공장소에 대한 특별 감시
 - 위험에 노출된 장소, 특히 광장 같은 곳에 경찰서와 이동초소 설치
 - 대형 이벤트 등 테러 발생 잠재상황에는 경찰, 소방대, 인명구조대를 지속적으로 투입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teilung.549276.php>

유진경 통신원, yoojin@gmx.de

도시계획·주택

정보·광고 시설물 면적 줄이고 디지털화

프랑스 파리시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파리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정보·광고 시설물의 면적을 40% 축소하고 디지털화하여 도시의 미적 가치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
- 배경
 - 현재의 정보·광고 시설물이 도시의 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해당 시설물의 면적을 축소해 도시 환경을 미적으로 개선할 목적
 - 정보·광고 시설물이 단순한 광고의 도구가 아니라 파리시와 함께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시의 일부가 되도록 혁신
- 주요 내용
 - 대형판 350개는 면적을 8㎡에서 2㎡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면적의 40%를 축소
 - 정보·광고 시설물의 총개수(1,630개)는 그대로 유지
 - 정보·광고 시설물을 디지털화
 - 원격 조정으로 표시 내용을 변경하고 밝기를 조절
 - 주변 지역의 지도, 관광 명소, 랜드마크, 주요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
 - QR코드를 활용하여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파리 기후협약의 실천
 - 정보·광고 시설물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31.4%를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
 - 시간대와 기후에 따른 일조량 변화를 감지해 밝기와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
- 재정 이익
 - 정보·광고 시설물 위탁운영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
 - 현재 2개의 회사가 파리시와 계약하여 상호 경쟁 중
 - 기존 10년 단위 재계약을 5년 단위로 바꿔 업체 간 경쟁 강화
 - 두 업체는 연간 사용료 3천만 유로(366억 원)를 포함해 광고 수익의 53%를 파리시에 환원할 예정

- 정보·광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파리시로 이전
 - 시설물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지만, 계약 종료 후 파리시로 소유권 이전
 -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수명은 15~20년으로 예상



그림 1. (위) 현행 정보·광고 시설물. 크기가 크고 종이로 된 포스터가 부착

그림 2. (아래) 새로 설치될 정보·광고 시설물. 면적을 축소하고 디지털화할 예정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va-reduire-de-40-la-surface-des-publicites-4597>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비전 제로’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23% 감소 2017.02.23
- 뉴욕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도로교통 안전정책 ‘비전 제로’(Vision Zero)의 시행 3년 차 결과를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도로 설계 개선·기관 협업 강화·경찰 집행력 강화·대형차량 소유자 안전교육·보행 약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2013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110-17/mayor-de-blasio-releases-vision-zero-year-three-report>
- ‘학생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안전계획 확대 2017.02.27
- 뉴욕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계획을 확대하기로 함. 경찰과 안전요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고카드 발행을 재량에 맡김. 또한 학생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115-17/mayor-de-blasio-expansion-programs-keep-students-school-improve-overall>

런던

- 템즈강 하구에 국제적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 조성 2017.02.13
- 런던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템즈강 하구에 창조·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런던시 제조산업 시설의 유산을 국제적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로 조성하기로 함.
※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 조성 계획: 영화 스튜디오, 연극제작 스튜디오, 3D 프린팅 센터, 대규모 최첨단 예술작품 제작 시설, 예술 체험 센터, 창조산업 지원시설, 창조산업 작업실 등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thames-estuary-vision>
- 시민건강 증진 장기 비전 발표 2017.02.16
- 런던시 보행 및 자전거 위원회는 런던시민의 건강을 위한 장기 비전을 발표함. 런던시민의 질병 개선을 위하여 하루 20분 보행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런던시 도로 계획을 발표함.
※ 건강도시 도로 계획: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 설계 개선, 화물 및 운송 관리 개선, 대중교통 연계 계획 등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etting-out-a-vision-for-getting-londoners-active>

- 10월부터 배출가스 많이 뽑는 노후 차량에 부담금 2017.02.17
-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월부터 배출가스 양이 많은 노후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 부과 대상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중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Euro 4)을 초과한 차량이며, 부담금은 10파운드(14,000원)임.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사이트: www.tfl.gov.uk/emissions-surcharge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introduces-10-toxicity-charge>

상 하 이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어렵게 하는 규제 완화 2017.02.15
- 상하이시는 국제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하이시 본부 설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관리, 출입국 관리, 직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404.html>
- ‘농촌관광 장려·전통문화 보존’ 농촌지역 재건 2017.02.16
- 상하이시는 농촌관광 장려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농민 75만 가구를 재건하고, 신규 농촌마을을 만들기로 함. 또한 농촌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417.html>
- 충밍섬을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만든다 2017.02.23
- 상하이시는 충밍(崇明)섬을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함. 섬 내에 공원을 확장하고 생태종을 늘리기로 함. 또한 2020년까지 섬 내에 신에너지 버스 등 녹색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486.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 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